

지원금 100여억원 날려놓고... 해남옥천농협 비리간부 감사기

실형 선고에 농협 등 지원 중단 불구 재판 선처 호소

해남 쌀 불신에 이마트 퇴출 등 애꿎은 농민만 피해

농협이 농민을 울리고 있다. 농협 간부들의 비위 행위로 농민들에게 쓰여질 100여억원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비양심적 농협의 행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애꿎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면서다. 하지만 농협측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간부들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3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오랜 기간 허위 서류 등을 작성,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목은 쌀을 햅쌀에 섞어 파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남 옥천농협 전 조합장 A씨와 전 미곡종합처리장 B상무, C소장, 전 농협중앙회 양곡센터 양곡팀장 등 6명의 혐소심이 최근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진행됐다.

이들 농협 간부들의 비위 행위는 옥천농협과 조합원들에게 13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준 점 외에도 목은 쌀을 섞

어 팔면서 해남 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민 피해도 이어졌다. 매년 250~300억의 매출고를 올렸던 옥천농협의 쌀도 한때 이마트에서 퇴출되는 '골육'도 겪어야 했다.

특히 농립수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의 자금 지원 중단이 가장 대표적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단위 농협에 대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규정에 따라 옥천 농협에 지원을 금지한 상태다. 지난해 옥천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받은 금액만 120억 원으로, 산지유통센터·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비롯, 농산물 수출활동비·공동농산물브랜드 사업 포장 및 운반비 지원 등 각종 신규 사업에 쓰여졌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 지원이 중단된 만큼 농민에게 돌아가

야할 혜택은 줄어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농협의 잘못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 셈이다.

농협측은 이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해당 간부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농민 이익을 위해 밟고 나서지는 못할 망정 농협과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농협 간부·직원들만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와관련, "신규 사업 자금이 중단됐을 뿐 비수매자금 또는 농기계 구입자금 등은 자금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월 옥천농협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 중 6명에게는 실형을, 3명에게는 징역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시내버스 하마터면...

밤길 운전자 부주의로 갓길 정차 차량 들이받아 승객 등 20여명 부상



운전자 부주의로 추돌사고를 낸 시내버스. /광주동부소방서 제공

밤에 승객 20여 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운전자 부주의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 29일 밤 10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월남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공사장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이모(63)씨가 운전하던 화순교통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던 박모(여·50)씨의 카니발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박씨의 남편 최모(51)씨가 크게 다쳐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이모(25)씨 등 승객 26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다.

버스 운전자 이씨는 당시 정류장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금기를 만지다 비상등을 켜 앞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 차량의 박씨 부부는 화순의 집으로 향하던 중 대화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다.

이씨는 운전 경력 35년으로 정년 퇴직 후 화순교통에 촉탁직으로 임용돼 일해 왔다. 한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교동안정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는 버스 사고가 706건이 발생, 10명이 숨지고 1179명이 부상을 당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세월호 수습 시신은 단원고 여학생

침몰한 세월호 선체에서 수습된 295번째 시신은 단원고 황지현양으로 확인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6시20분께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 황지현 양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황양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된 뒤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으로 옮겨졌다.

시신이 수습된 지난 29일은 황지현 양의 18번째 생일이어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원전 위조부품 손실은 600억...배상은 4490만원

한수원, 한전KPS 상대 손해소 쓸쓸한 승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영광) 원전에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을 공급한 책임을 물어 한전 KP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각에서는 승소 규모는 4000만원대에 불과한 반면,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발전을 정지하면서 입은 전력판매량 손실액만 600억원에 이르고 해당 기간 발전 정지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사업비 16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상현 판사는 한수원이 한전 KP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전 KPS는 한수원에 4490만원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5·6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한전 KPS로부터 4490만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했다가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전 공급 부품 전량 교체 상황이 빚어졌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위조 부품 공급이 확인된 뒤 2개월간 발전소가동을 중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 KPS는 한수원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모두 그 품질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전

KPS가 납품업체로부터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을 구매해 한수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검수 등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 공급으로 한수원이 입은 손해와 관련, 부품교체를 위한 발전 정지 기간(5호기 55일, 6호기 58일) 중 전력 판매량 손실(600억) 및 부품 교체작업에 투입된 정비 비용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한수원은 전력판매량 손실액만 600억원이 넘는데도, '손해배상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물품구매계약에 발목이 잡혀 고작 4400만원대 소송만 제기한 셈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식량주권 지키자" 전남 광주전남연맹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5개 시민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우리농업지킴이 광주운동본부(준)' 출범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민족의 생명줄인 쌀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우리의 먹을 권리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병원도 80억대 통상임금 소송전

1091명 제기...12월 1심 판결

전남대병원도 '통상임금' 소송전에 휩싸였다.

3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A씨 등 1091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장기근속수당 등 10여개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 오는 12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지부측이 제시한 소송 가액만 81억1300만원에 달해 소송 결과에 따라 병원측의 추가 비용 지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병원지부측은 병원 측과 통상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받았지만 '선택적 복직카드', '회순전남대병원 격려금', '장기 근속수당', '대민업무 지원비' 등의 의견 차이가 커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정기적(定期的)·일률적(一律的)·고정적(固定的)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광주지역 공기업들을 비롯, 통상 임금 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으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성 유혹 30대-제지 10대 몸싸움

○한 밤중에 길 가던 여성들을 유혹하려던 30대 남성과 이를 제지한 10대 남성간에 몸싸움이 일어나 두 남성이 나란히 경찰서행.

○3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의 한 모텔 앞에서 김모(35)씨가 "같이 놀자"고 길가던 여성들을 막아선 것을 우연히 지켜본 임모(19)군이 끼어들어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순간 둘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경찰에서 "네 탓이다"며 잘못을 떠넘겼지만, 경찰은 "원인이야 어찌됐든 술마시고 들어서 싸운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설명.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협의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원 이상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시세 및 감정가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3억5천만원 가, 보 2억에 월27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대형주차장, 텃밭, 전체울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울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0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울수리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